

합격기  
[제45회 외무고시 합격]

꿈을,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노력입니다.



조 성 현

- 1988년 2월 생
- 감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재학
- 제45회(2011년) 외무고시 합격

## I.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올해 외무고시에 최종 합격한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국제법 책이 좋을까, 인터넷 강의를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합격 수기들을 보며 정말 부럽다고 생각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제가 합격자의 신분으로 수기를 쓰고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곧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겠지요.

본격적으로 제 수기를 읽으시기 전에 명심하셨으면 하는 점은, 세상은 본질적으로 “case by case”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교과서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합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한 개인의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이 만든 서브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합격자들이 한 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 II. 수험 생활

### 1. 재입학, 그리고 첫 1차(2009년)

처음에 저는 틈틈이 영어 잡지를 읽고 <News English Powerdic>을 암기하는 한편, 국제정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은 솔직히 뭘 공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박재영 교수님의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체를 노트로 옮겨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인데, 고시 준비 초보라면 누구나 저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강의도 국제관계이론, 영어작문 등 시험과 관련있는 과목을 위주로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처음 외무고시에 응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PSAT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몰랐고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2010년부터는 늘 1차 사흘 전부터 PSAT 공부를 했습니다. 2009년에도 1차 합격을 했지만, 2차 공부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차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은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한 해였습니다. 학원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을 뿐 아니라, 2009년 5월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 일요일에는 거의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 자체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살면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학교 도서관이나 고시반에서 했기 때문에 학원 강의는 거의 듣지 않았고, 김진욱 선생님의 미시와 거시 예비순환을 인터넷으로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2학기에는 고급학술영작문과 국제학부 전공 수업을 수강했는데,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부 특성 상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학기에는 교양독어초급, 2학기에는 교양독어중급 수업도 들었습니다.

## 2. 본격적인 외무고시 준비 시작(2010년)

2010년 1월과 2월에는 이상구 선생님의 <논점특강 국제정치>와 김용구 교수님의 <세계의교사>를 공부하는 한편, 미시와 거시 1순환을 인터넷으로 수강했습니다. 워낙 해야 할 분량이 많다 보니 솔직히 모의고사 푸는 것은 다 포기했고 교과서도 몇 번 정독하지 못한 채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하다 보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1학기 개강 후에는 학교에서 국제정치 관련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제정치론이나 외교사, 동북아국제관계론 같은 수업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제정치 과목의 경우 수험 생활 내내 학원 강의를 동영상으로도, 실강으로도 한 번도 듣지 않았으며 모의고사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을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고 올해 점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1학기에는 12학점만 수강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으로 백승호 선생님의 국제법 예비순환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국제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국제법 예비순환을 마친 후 여름 방학 때는 김대순 교수의 <국제법론>을 2회 더 정독하고 부족한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2학기는 고민 끝에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신림동으로 이사를 한 저는 9월에도 계속해서 경제학 공부를 했고, 10월부터 경제학 2순환을 수강했지만 과외를 두 개나 하느라 뺏기는 시간이 상당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나는 대로 예습과 복습을 했

습니다. 경제학 2순환이 끝난 후에도 경제학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제정치 2순환은 깨끗이 포기하고 논문집이나 모의고사 자료도 사지 않았습니 다. 국제정치 2순환 기간 내내 경제학을 보충한 후, 국제법 2순환 시작 사흘 정도를 남겨두고 <국제법론>을 1회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법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국제법 2순환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제법론과 17인 공저 국제경제법을 공부하며 학원 수업의 예습 및 복습을 했습니다.

### 3. 수험 생활의 정점(2011년 겨울과 봄)

국제법 2순환이 끝났을 때, 저는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어학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고 경제학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만큼 어학 성적을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경제학의 경우 제가 수식과 그래프를 싫어하다 보니 잘 할 수가 없었으며, 2순환 내내 모의고사에서 반타작을 하기도 어려웠습니 다. 게다가 저는 2011년 새해가 밝을 때까지 국제경제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헉서-올린 정리가 뭔지도 몰랐습니 다. 그렇지만 그 때 남은 기간은 4개월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학과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고 전과목 최종 정리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학 공부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제경제학 공부로 겨울 방학을 보냈습니 다. 중간중간 국제정치학 논문을 읽기도 했지만 거의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에만 시간을 투자했

습니다. 어차피 이런 실력으로는 1차 붙어도 2차에서 떨어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셋은 1차 시험 전 이틀만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3월이 되었는데, 올해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브를 만들어둔 과목이 단 하나도 없었고, 독일어 에세이는 한 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짚지만 단 문장도 쓸 수가 없는 자신이 미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복학을 했습니다. 물론 그나마 시험과 관련이 있는 독일어 문법, 국제법각론, 국제경제법 등의 수업을 신청했지만, 그냥 남은 두달 최선을 다해서 2차 보고 1년 더 해서 내년에는 꼭 붙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두달 동안에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과목들의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 정리라는 것이 그냥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모든 교재를 다 보는 것이었는데, 수험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 솔직히 공부한 것도 별로 없어서 정리할 자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 4. 2차 시험(4월 21, 22, 23일)

저는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에서 고득점을 하고 어학 과목은 평균, 경제학은 면과락을 한다는 전략으로 2차 시험에 임했습니다. 첫날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국제정치학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문제는 좀 황당하기는 했지만 대충 아는 것을 다 썼습니 다. PSI도 최대한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쓴다는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했고, 조선책략은 김용구 교수님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 생각을 가미하여 썼습니 다. 학교로

돌아와서는 독일어 단어와 국제법 판례, 조문을 외우고 서브를 한 번 훑었습니다.

둘째 날 국제법 시험은 1문을 상당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과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완전히 GATT로만 문제를 해결했는데, 썩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일 스멜터 문제는 국가책임초안 규정을 중심으로 환경법적인 개념을 추가해서 썼고,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성립 과정과 예외 문제는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반국제법 두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최근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독일어는 솔직히 거의 반 포기 상태였는데, 다행히 전날 외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번역은 어느 정도 선방했고 에세이는 그냥 아는 독일어 단어만 다 쓰자는 마음가짐으로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쓰고 나왔습니다.

둘째 날 오후부터 마지막 날 아침까지는 밤새 경제학 자료들을 복습했습니다만, 저는 시험 문제를 읽고 한 5분 동안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네 과목을 선방했는데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1년 더 할 거 10장이나 채우고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펜을 휘갈겼고 2문->3문->1문의 순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먼델-플레밍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을 했고, 이 모형이 상

대적으로 쉬운 파트라고 생각해서 전날 복습도 안 했다 보니, 그래프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3문도 FTA, 수없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헉서-올린 정리도 거의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그래프도 안 그렸으며, 동태적 효과와 정태적 효과 비교도 아무 말이나 썼습니다. 1문은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프보다 답을 맞추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학은 전체적으로 망했다고 생각했고, 2차 발표가 날 때까지 과락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비록 10장은 채웠지만 실수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 IV. 과목별 공부방법론

##### 1. 영어

News English Powerdic이 거의 영어 공부의 80%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각 부분에서 제가 몰랐던 어구들을 단어장에 따로 옮겨서 암기했고, 중요한 표현들은 반복해서 봤습니다. 라이팅 스타트 업과 CNN필수영단어는 스테디를 통해서 학습했는데, 솔직히 별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따로 노트에 옮겨 적는 정도로만 학습했습니다. 정영한 선생님 자료를 주변 분들이 공부하시는 모습을 본 적은 있는데 제가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제 학과의 전공 수업은 모두 영강이기 때문에 교과서, 시험, 과제 등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지므로 그런 면에서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영어는 평소 실력이 중요하지 어떤 강의나 교재를 듣는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리아 헤럴드를 가지고 학습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한 번도 그 신문을 본 적이 없지만 효과를 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에서 받은 외국인 교수님의이 첨삭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친한 국제학부 동생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임지나 뉴스위크지는 시간 나는 대로 사서 관심 있는 부분을 읽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는 식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어는 단기간에 실력 올리가 힘든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학 교재를 원서로 읽는대거나, 국제법 공부를 하면서 영어 조문을 찾아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영어와 친숙해져서 많은 표현을 익히는 것도 시사적인 주제가 많이 출제되는 외시 영어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2. 국제정치학

철저히 학교 강의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국제정치학은 수험적합도 있게 공부하거나 가르친다는 개념이 거의 성립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학원 강의나 학원에서 주는 여러 자료들을 얻어도 그냥 다 버렸습니다. 비록 조선책략이 나와서 시험에 써먹지는 못했지만, 이용현 교수님의 외교사 수업은 특히 큰 도움이 되었고 엄상운 교수님의 국제정치론 수업도 정말 좋았습니다.

교재는 <국제정치 패러다임>, <국제정세의 이해>, <국제분쟁의 이해>, <논점

특강 국제정치>, <세계외교사>, <변화의 세계정치> 등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구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은 없습디만, <논점특강 국제정치>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책을 처음부터 보는 것은 좋지 않고 국제정치 다방면에 걸친 독서와 강의 수강을 통해 어느 정도 감각을 갖춘 후 그것을 구체화,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집은 복사집에서 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국제정치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취사 선택한 후 출력하여 읽었습니다. 총 4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읽을 때는 중요하거나 처음 본 부분에 줄을 친 후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는 형식으로 논문을 활용했습니다.

외교사는 학교 수업을 들으며 작성한 필기 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면 조약 체결 날짜 등을 암기하는 것을 중요시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점이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큰 틀만 잡으면 디테일들이 자연히 상기되다 보니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용구 교수님의 세계외교사가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서양 부분은 빠짐없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양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여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국제법

저는 국제법은 완전히 기본서와 제가

편집한 조약집으로만 밀어붙였습니다. 학원에서 주는 논문집도 제목만 읽고 전부 다 버렸고, 따로 논문을 인쇄한 적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법론은 언급된 판례만 수 백 개가 넘고 조문은 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다 공부하기도 벅찬데 논문을 읽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로지 국제법론만 공부했습니다. 8회독 이상은 한 것 같고, 따로 판례 모음 노트를 만들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판례를 언급해야 하는지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중요 조문을 모은 조약집을 출력도 하고 휴대폰에도 넣어서 시간날 때마다 외웠습니다. 중요한 조문(예를 들면 UN헌장 51조, 외교관계협약 29조, GATT 3조 2항 등)은 50번 이상, 나머지 조문은 20번 이상 읽고 조문 번호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국제경제법은 백승호 선생님이 만드신 교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일부 중요한 조문만 발췌하여 반복 학습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수험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다 볼 수가 없어서 2순환 이후부터는 몇 장을 과감히 배제해 버리고 공부했습니다만 절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출제되었거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최근에 강조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4. 독일어

문법은 최신독일어와 고시독일어로 했고, 독해와 작문은 김미선 선생님이 수업 때 사용하셨다는 자료를 구해서 스

터디를 했습니다. 단어는 따로 단어장을 사지는 않았고 제가 공부하는 독일어 책에 나오는 독일어 단어들을 단어수첩에 옮겨서 틈 나는 대로 외웠습니다. 학원 수업을 들은 적은 없고 그냥 스테디에 충실했습니다. 솔직히 선택과목이다 보니 비중을 덜 두었습니다.

#### 5. 경제학

미시는 이준구 교수님 책을, 거시는 처음에는 맨큐 교수님, 2순환부터 정운찬 교수님 책을 보았습니다. 국제경제학은 시종일관 김인준 교수님 책으로만 공부했습니다. 다만 저는 김진욱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받는 보충자료를 zip workbook에 끼워넣어서 만든 단권 자료가 하나 더 있었고 시험 전날에는 이 책만 봤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바도 없었고 딱히 좋아하는 과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할 만큼만 하자는 마인드로 남들 다 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제나 600제는 구경도 못 해 봤고, 김경수-박대근 교수님이나 조장옥 교수님 저 거시, 이영환 교수님, 서승환 교수님, 핀다이크 교수님 미시, 김신행 교수님 저 국제경제학 교재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니다. 어차피 시험에는 중요한 것 위주로 나오고 또 그렇게 답안을 써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모든 책에 다 나오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V. 몇 가지 조언

### 1. 1차 시험

솔직히 2주 공부하나 두 달 공부하나 1차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일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또는 얼마나 적은 게 많이 맞았는지가 중요하지 공부해서 감각을 익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자료 해석 방법이나 논리학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2주일 이상 1차 공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2차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1차만 통과하면 2차 무조건 붙을 자신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1월까지는 계속 2차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한 달이면 논문 과목 기본서 한번 다 훑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이 시험은 1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1차가 계속 불안하시다면, 기출 문제를 많이 푸시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 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학원이나 문제집 모의고사 문제와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의 질의 차이는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괜히 모강 붙잡고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좋은 교양서들을 읽으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 2. 2차 시험

어학 과목을 제외하면 2차는 정말 시간 싸움입니다. 정말 아무 말이나 써도 2시간에 10장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공부한 내용을 정리까지 해서 쓰는 것은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저는 2시간짜리 모의고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2차를 1주일 정도 남겨두고 혼자 논문 과목만 시간 채고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10장 쓰고 나니 국제법과 경제학은 2시간 10분, 국제정치학은 2시간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로 시험장에서 쓰는 목차를 안 짜고 답안을 썼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어차피 처음 짠 목차도 나중에는 다 수정되게 마련이니까 대충의 흐름만 생각하고 바로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문제 읽기와 목차 구성에 20분 쓰고 10분에 1페이지씩 쓰겠다는 분도 계신데, 그게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쓰십시오. 목차 안 짜고 쓰니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은 3분, 경제학은 1분을 남겨놓고 답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답안의 내용이 중요하지 10장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량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논문 과목에 출제되는 토픽은 다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서너 장도 안 채워서 적어내시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0점이었던 무력사용금지원칙 문제의 경우 40점으로 나와도 쓸 것이 넘치는데, 세 장을 못 채운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설령 폭탄 문제가 나와도 아무 거라도 쓰십시오. 백지 내면 당연히 0점이지만 소설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뒤든 쓰시면 1할의 점수라도 받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게 아니면 기본적인

인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어느 정도 나오니까, 답안지에 빈 칸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학 과목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문제는 일단 직역이 원칙입니다. 직역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그런 심려는 옆에 놓아 두고”같은 문장처럼...)는 당연히 의역을 해야겠지만, 일단 직역을 먼저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의역이 많으면 잘 모르니 얼버무린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어진 문장은 복잡하더라도 번역은 명쾌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문제는 한국어 지문 내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문제는 거의 영어 텍스트를 한글로 번역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어로 번역이 된 문장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도 예외가 아니었다.”를 “Obama was not the exception.”으로 쓰시면 보기에는 자연스러워도 “Obama was no exception.”이 훨씬 영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에세이의 경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를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아예 주제에서 어긋난 걸 쓰면 안 되지만, 논설문 시험이 아니라 외국어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학 과목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에서 형용사 변화나 성을 틀리게 적은 부분이 여럿 있고 두어 단어는 아예 빼고 썼는데도 7할이 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 3. 3차 시험

2차 결과 발표 후 약 열흘 후에, 양재역에서 버스타고 15분 정도 가면 있는 KOICA연수원에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약 9시 정도까지 도착을 해야 하고, 이를 내내 어떠한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정장을 입어 본 기억이 납니다. 비록 다섯 명 중 한 명이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모두 다 잘 되자는 그런 굉장히 협조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니 편안하게 가셔도 됩니다. 2010년의 경우 1조에서는 두 명의 탈락자가 나오고 다른 조는 다섯 명이 모두 합격했다고 하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조에서 한 명씩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위원단은 가운데에 외교통상부 국장님이나 대사님, 대사님 오른쪽에는 교수님, 왼쪽에는 헤드헌터 분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차 점수는 3차에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면접 동점이거나 두 사람 중 누구를 탈락시켜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때 면접관님들께서 2차 점수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차 점수가 낮은 사람이 탈락한다고 합니다.

### VIII. 나가는 말: 마인드의 중요성

정말 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꿈, 긍정적인 마인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외에 중요한 점이 있다면 공부를 재밌게 하면 좋다는 점입니다. 저



는 과외와 고시를 병행하다 보니 진도 따라잡거나 모의고사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하루 종일 독서실에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지루하다며 자신과의 싸움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하루 과외가 취소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독서실에 있을 수 있게 되면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비흡연자이고 여자친구가 없었던 점도 제게는 유리했지만 무엇보다 저는 공부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능력있는 외교관으로 서기 위해 실력을 갈고 닦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험 생활이 즐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경제학이 모두 정말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독서실 잡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형이 2010년에 사법

고시에 합격해서 독서실비를 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그 독서실 앞에 가면 독서실을 꿰뚫는 기쁨이 느껴집니다.

제가 정외과 1학년 학생 때 저는 “외무고시 합격생과의 만남”이라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한 선배님께서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거예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그 분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존재로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합격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굳게 믿으시고,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의 기쁨은 곧 여러분과 함께할 거라 믿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